

11/6/16

설교 제목: 성령받은 증거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12:1-11

- (고전 12:1)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 (고전 12: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절관주** 마 16:16
- (고전 12: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절관주** 엡 4:4
- (고전 12: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 (고전 12: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절관주** 엡 1:19, 골 1:29
- (고전 12: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절관주** 롬 12:6, 엡 4:12
- (고전 12: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 (고전 12: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 (고전 12: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절관주** 1 요 4:1
- (고전 12: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절관주** 롬 12:6-8, 고전 7:7, 요 3:8, 히 2:4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비상시국에 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와 40 여년 이상 관계를 맺어온 최태민 일가의 비리로 온 나라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1 조 2 항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이 헌법 1 조 2 항에 근거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임의로 최태민 일가와 공유했거나 넘겨 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1 조 1 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1 조 2 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기에 이 사건은 다른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뇌물 수수 비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대통령도 잘 알기에 사건이 언론에 터지자 당황하여 바로 다음날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럼에도 사건이 진정되지 않자 다시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어제는 주체축 추산으로 약 20 만명의 서울 시민이 모여 대통령 하야 궐기 대회를 했다고 하니 아마도 대통령은 곧 세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 내부를 들여다 보면 여느 비리 사건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돈, 권력, 성 이외에 영적인 문제가 연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단 연구가 탁명환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장에 의하면 최태민은 원자경 교주로 큰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날 돌연 목사가 되었고 대한 구국 십자군의 총재를 자처하며 어머니 육여사를 잃어 방황하던 박근혜 영애를 등에 업고 나타나 온갖 세도를 부리며 부를 축적했고 비리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근혜양은 돌아가신 육여사가 꿈에 나타나 우매한 내 딸 근혜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최태민이 써서 청와대로 보낸 편지를 받은 후 그를 만났는데 만난 첫 날 (1975 년) 육여사가 최태민에게 빙의되어 나타난 모습을 보고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입신이라는 것을 했으나 봅니다. 그 후부터 근혜 양은 최태민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고 따랐답니다. 최태민을 잘 아는 사람들은 최태민이 큰 무당이었던 만큼 상당한 영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부인도 6 명이나 되었고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최태민은 근혜양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후 성북동 자택에 칩거하고 있을 때에도 자택에 드나들면서 근혜양과 교류했는데 당시 근혜 양에게 장차 여왕이 되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생들과 멀리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생들과 이간질을 해 고립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따른 것인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동생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고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져 예언을 들었을 당시에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던 대통령이 되었으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최태민을 하늘같이 생각했나 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사 토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처리하는데 있어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 수석들, 비서들과 같은 공식적이고 유능한 참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치나 경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단국대를 청강생으로 입학해 다녔고 호스트바에서 만난 고영환과 같은 부류와 어울려 다니는 강남 아줌마를 비선 라인으로 두고 그에게 의지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믿어지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으로부터 받은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사한 영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있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와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문제가 되는 이슈마다 신학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교인들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문제 중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빚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권면한 것 중 서론 부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없어서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길 즐겼고 그것을 자랑하며 교만을 부렸습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들어내고자 예배시 방언과 예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비한 역사의 체험을 하지 못해 실제로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위축됐고 반대로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왜람되게도 자신이 한 신비한 체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며 자랑하고 큰 소리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성령,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신령한 것들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생각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글 서두에 신령한 것에 대한 신학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고전 12:1)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전 12: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을 지적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무슨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체험이나 황홀경에 빠지는 경험, 입신, 방언, 예언등을 해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만 전에는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신전에서는 황홀경에 빠져 신을 예배하는 전통이 있었고 그 의식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머리 속에 잠재적으로 잔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기하고 일상적인 것과 다른 어떤 체험을 하면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밝힌 바와 같이 그런 현상들이 모두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고치는 신비한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무당도 보십시오.

신접해서 작두도 타고 춤도 추고 귀신과 대화도 합니다.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병도 고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바울은 교인들에게 올바른 신학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 교회에서 말하는 것같이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예수를 주시다'라고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다'라는 고백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만유의 주로 높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하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영역에서 해방되어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권의 영역으로 이전케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자신도 목수 일을 하다 30대 초반에 흉악 무도한 범죄자거나 처형되었던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은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청년 예수가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토록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야기되고 있는 죄악들 (분파, 성적 문란, 우상 숭배, 거짓 교사, 예배시 무질서, 빈부간의 갈등, 교회 내에서 자기 주장)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러면 그들이 신령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애둘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은 정직의 영이고 윤리의 영이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믿음과 사랑과 의가 나타나지 비윤리적이거나 몰상식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선물을 말하면서 그것들을 은사(charismata)라고 불러 성령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고전 12: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전 12: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고전 12: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전 12: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모두에게 주를 섬기라고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하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주어지는데 그 이유는 각기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홉 가지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고전 12: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전 12: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고전 12: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주에 대한 특별한 신뢰로 인해 이적을 이루어내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언은 점쟁이 같이 미래를 알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말하며 영들 분별하는 능력은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전 12: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들은 성령님이 주권으로 값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나누어 준 것이므로 은사받은 자는 거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하면 안되는 겁니다.

특히 돈받고 은사를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어떤 특정한 은사를 자신이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데 모든 은사는 우열이 없이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세상이 혼탁합니다.

영 분별의 능력을 받아 영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예언이나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느냐와 예수의 주권이 나타나는냐를 주의 깊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신비한 체험과는 상관없이 모두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